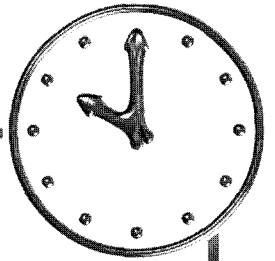


농약의 안전성은 신화(神話)인가?



‘농약 안전성’ 논의 유용성 이해 넓혀 나가는 것

‘식량의 풍부함’ 농약사용 기술체계 소산, 인지도 낮아 부정적
‘유용성’ 눈·피부통한 확인 어려워, 양면성 이해노력 있어야

- 宮本純之 -

농약의 필요성, 자동차 필요성만 못하나?

자동차가 현대사회에 필수불가결의 운반수단이란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연간 만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태가 초래되더라도, 또 일부지역에서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심각하게 대두되더라도 누구 한사람 자동차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은 없다. 이것은 일반대중이 자동차의 편리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지닌 마이너스면과의 비교는 각자의 판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농약도 자동차처럼 물 관리, 기계화, 우량종자, 종묘, 비료 등과 더불어 농업의 근대화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자재이지만 농약에 대한 일반대중의 반응은 자동차와는 아주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약무용론, 농약유해론의 소리가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쌀과 신선채소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식량자급율은 매우 낮아 많은 식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농약이 갖는 필요성, 편익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며 식량의 풍부함이 농약사용 기술체계의 소산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적어도 세계적인 구중 수역이 넘는 사람이 영양부족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단지 농약 유해론에 귀를 기울인채 무농약재배에 가담하는 것은 아닐까?

그 밖에 일본의 농경지는 극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농약사용량이 미국 다음가는 세계 제2위라는 점 때문에 일본농업은 농약의 범벅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일본은 첫째, 기상조건이 병해충이 발생하기 좋고 잡초도 자라기 쉽다는 것과 둘째, 일반적으로 집약적 농업이며 연중에 걸쳐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 셋째, 경영형태(제1종, 제2종 겸업등)로 보아 철저한 적기방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약사용량이 많다고 생각한다(여기서는 농민에게 가혹한 제조작

업을 강요하는 도시인들의 이기주의는 논외로 하지만). 이 점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농약효과에 관한 충분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이해를 도모한다면 이와 같은 비난이나 생각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수입농산물은 소위 포스트하베스트 뭉까지 합쳐서 농약잔류량이 많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 또한 일본을 비롯한 국제적인 협조체제(JMPR, CCPR 등) 속에서 인정되고 있는 처리 방법이라는 점과 보존, 조리과정에서의 농약잔류량의 변화(감소) 실태를 무시한 일방적인 비난인 것이다.

보통 식량이 부족할 때는 농약의 유용성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양질의 식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때에는 그 유용성이 무시당하기 쉬운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농약의 안전성 논의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약의 유용성에 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다.

보다 정확한 Risk Communication

농약의 필요성, 유용성 및 실제 사용조건에서의 안전성은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농약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농약의 유용성을 일반 대중이 눈이나 피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안전성평가 방법이 복잡하다는 점, 전후(戰後)에 발생한 몇가지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 인식의 혼재 등이 농약에 대한 마이너스적인 인상을 정착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부 반 과학주의자나 반체제론자는 논외로 하고 농약은 유용성과 위험이 상호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양면성을 사회전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중·고등교육기관에서 현대문명이 낳은 이러한 기술이 갖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면이 올바르게 다루어진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중·고등 교과서

에 수록된 농약에 관한 내용을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또 편견이라 생각되는 마스크의 농약비판 내지 비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사회심리학적 고찰은 과연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농약문제는 일반대중의 이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사회전체의 이해를 얻기 위한 시도가 지금까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안전”이란 용어가 “절대적 안전”과 동의적인 뉘앙스로 쓰여 왔다고 느껴진다. 농약의 경우도 정확하게는 “안전성평가”라기 보다는 영어의 “Risk Assessment”라고 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Risk의 적절한 번역어가 없어 Risk평가라는 말보다는 안전성 평가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사실의 정확한 이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 것은 아닐까?

현대문명은 갖가지 많은 편리함과 Risk를 우리 생활에 가져왔다. 그런데도 농약의 안전성 문제만은 사회적인 Risk 논의의 범주밖에 놓이고 싶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농약의 위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달 노력이 더욱 증폭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농약의 다른 측면인 유용성과 균형을 이루어 영농필수자재로서의 농약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존재인식이 널리 확산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눈부신 진보는 지구환경보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세계적 인식 때문에 과학기술의 이용을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즉, 지구환경의 장래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과학기술의 진보속도나 방향의 변경마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기에는 현행 식물보호체계 속에서의 농약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Risk도 함께 인식하는 것이 보다 우수한 농약 개발에도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농약정보**